

진흥회 활동

국제 계측제어기기전 개최



한국전자산업진흥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공동 주최 하는 제12회 서울국제계측기기전이 지난 22일에서 25일까지 한국종합전시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전시회에는 LG전자부품, 공보엔지니어링, 광성계측기 등 국내외(미국, 일본 등) 13개국 13개사가 출품한 700여 제품의 최신 정밀기기가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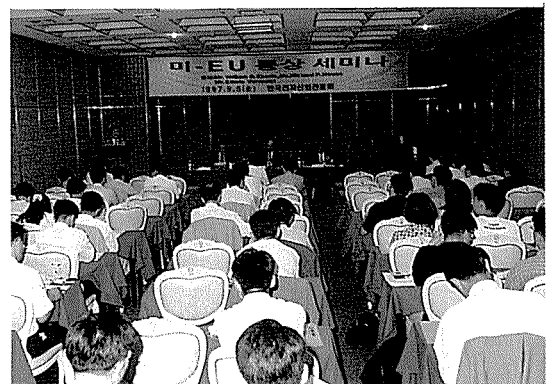
이 가운데는 20Hz 휴대형 디지털스코프, 초정밀 비접촉 측정용 표현한 광학식 치수형상, 표면고도측정기, GIS지도상의 이동체 위치를 감시 추적하는 위성위치 추적장치 등 700여종의 최신장비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그동안 전량수입에 의존해 오던 계측제어기기의 핵심부품인 센서류들이 국내 기술로 개발, 출품되어 국내외 수요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또한 부대행사로써는 화력발전소 계측제어설비 현황 및 신기술동향, 광학계측기기의 기술동향 전망 등의 세미나도 개최되었다.

그동안 국내계측제어기기 산업의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참여가 부진했으나 이번 전시회는 예년에 비해 높은 참가율을 보였으며 예년보다 훨씬 많은 바이어 및 관람객이 이번 전시회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미·EU 통상 세미나' 개최



최근의 통상환경은 WTO 출범이후 세계무역이 외관상 자유화되고 있으나 선진 각국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뿐만 아니라 원산지 조사, 제품 안전인증

등 관세, 비관세 무역장벽을 빈번히 사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불합리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하여는 WTO 제소 등 강력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회 국제부에서는 지난 9월 5일 한국과학기술회관 회의실에서 한국의 주요 무역대상국인 미국과 EU의 이러한 통상 정책들에 회원사들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의 전 USTR 대표 및 양 지역의 본회 통상 고문변호사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연사는 Mr. William D. Eberle(전 USTR 대표)
Mr. Edwin Vermulst(본회 EU 고문변호사)
Mr. Michael P. House(본회 미국 고문변호사)
이며

세미나 주요내용은 '97/98 미국 통상정책(투자 및 경쟁협정, OECD 수리 및 부패방지 협정 등), 한-미 WTO 분쟁(CTV, 반도체) 미국 반덤핑법 UR 이행안, GSP개정안, 범유럽 원산지 규정, EU 무역장벽 규정 반덤핑 규정개정 등 우리가 당면한 통상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다.

폐기전제품 재자원화 방안 전문가 토론회 개최

— 재자원화 시설투자, 관련법 제정 시급 —



본회 가전산업부에서는 9월 2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정부,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연구소, 언론계,

학계, 업계 등의 전문가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폐기전제품의 효율적 재자원화 방안에 관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송실대 도갑수 교수(재자원화 연구센터 소장) 사회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한국전자산업진흥회 박재인 상무는 우리나라는 폐가전제품의 회수, 재자원화 및 처리를 위해 1992년부터 폐기물 예치금 제도와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제도를 시행해 왔으나 폐가전제품을 분해 분리해 재자원화할 수 있는 시설이 거의 없어 소비자와 제조자의 비용부담만 증가되고 회수 재자원화는 매우 저조한 실태라고 분석하고 폐가전제품을 효율적으로 재자원화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특정계층에만 그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배출자, 지자체 외에 제조 및 수입자, 판매자, 재자원화 사업자 등이 모두 나서 적정히 역할을 분담해야 하며 재자원화 및 폐기물처리의 시설투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그 운용에 있어서는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우선 재자원화 시설투자가 시급한 만큼 제조 및 수입자로 하여금 예치금을 재자원화 시설 투자에 사용토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고 소비자에 대한 폐가전제품 회수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별로 폐기물 집하장을 확충하는 한편 가능한 판매사업자도 폐가전제품의 회수 지원 사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주제발표 뒤에는 지정토론으로 업계, 지자체, 소비자, 재활용업체, 학계, 언론기관, 연구기관, 정부 등의 각계 의견발표가 있었다.

(* 자세한 내용은 이달의 초점)

세탁기설치 표준안 마련

본회 가전과에서는 세탁기 설치에 따른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세탁기 설치 환경표준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세탁기 설치 장소로 △ 통풍이 잘

되고 습기 없는 곳 △ 눈·비바람·직사광선 피할 수 있는 곳 △ 물이 얼지 않는 곳 △ 바닥이 단단하고 수평진 곳 등으로 했고 세탁기 설치환경으로는 △ 설치장소 오수관이 연결된 다용도실 및 뒷배란다 △ 가로·세로가 800mm·1,200mm 이상의 진입문이 확보된 곳 △ 수도꼭지가 외경 20mm 이상, 설치높이가 바닥에서 1,200mm 이상 등으로 했다.

또 설치위치는 세탁기로부터 800mm 이내로 세탁기 뒤쪽 또는 좌우측 벽면으로 했으며 냉·온수 꼭지 간격은 20mm로 했다.

전압은 교류220V로 콘센트는 방수 Type으로 수도꼭지보다 최소 200mm이상 높은 수도꼭지 반대쪽 벽면에 설치 해야하며 세탁기 설치대는 규격 800(mm)×800(mm)×20(mm)으로 표면이 매끄럽지 않고 물기를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의 것으로 하는 것이 좋으며 배수구는 설치대 좌측, 우측 측면 반경 800mm이내가 적당하다.

본회 환경과에서는 지난 9월9일 팔래스호텔 에서 통상산업부, 산업연구원, 대한상공회의소, 서울시립대, 숭실대, LG전자, 삼성전자, 대우전자 등 관련자들이 모인 가운데 가전제품 재활용 촉진특별조치법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였다.

통상부에서는 가전제품의 특성을 고려 현행제도의 모순점, 제품생산 단계부터 환경 친화적인 구조 개선 등 특별법 제정에 관한 입법취지 설명이 있었고 학계, 업계, 단체 관계자들에게 특별법 제정에 관한 취지·입법방향 등에 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제시 해 줄 것을 제안하였다.

이날 의견 수렴결과 참석자들은 특별법 제정에 있어, 현행 “재활용촉진법”과의 차별성과 산업정책 차원에서의 법 명칭 변경 등 업계의 관심과 경쟁력이 충분히 제고되어야 하며 제품의 생산, 판매, 폐기등 전과정의 근본적인 환경문제 해결 방안을 고려하여, 입법필요성 및 취지에 맞게 제정될 수 있도록 당부 하였다.

가전제품 재활용 특별조치법 제정 관련 조찬간담회

